

우린
달리진
세상을
살 거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후원 | 서울특별시성평등기금

우린
달리진
세상을
살거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후원 | 서울특별시성평등기금

우린
달라진
세상을
살
거야

우린 달라진 세상을 살 거야

- 발행일** 2020년 9월 30일
기획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글쓴이 엠마 보다 푸른 오이김밥 소연 Hope_Planner
감수 박미라
기획편집 박미라 정선 김륜형 손영주 신상아 최수영 황현숙
펴낸곳 (사)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 서울특별시성평등기금
디자인 동방기획 02-2277-0365

이 책의 저작권은 (사)서울여성노동자회에 있습니다.

이 글모음은
‘기록과 치유의 시간, 너를 공감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나와 또 다른 나에게
직접 쓴 편지입니다.

펴내며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수없이 되뇌어 봐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고, 불안한 그 순간
우린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찾기 어려운
나와 비슷한 경험으로 위로와 지지를 해 줄 이들.

그래서 서울여노는
‘기록과 치유의 시간, 너를 공감해’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다른 나의 마음도 어루만지는 시간
온몸으로 살아낸 경험을 글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이 또 다른 나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주신 참여자들
글 안내자로 참여해 주신 박미라샘
마음 듬뿍 지지를 해 주신 심리정서지원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린 달라진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함께 걸어요.

2020년 9월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차례

1부

- 08 나는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이다! _엠마
- 14 문제제기 안해도 괜찮아? _보다
- 20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_푸른
- 28 게임업계 사상검증으로 여성노동자는 설 곳이 없다. _오이김밥

2부

- 36 나 소연에게 _소연
- 46 그런 일 당하고도 살아도 돼요? _Hope Planner

[기록과 치유의 시간, 너를 공감해] 진행 후기

- 58 온몸으로 살아낸 경험을 글로 쓰는 시간 _박미라
- 62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안내

01

여기 네 편의 글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후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다시
보듬어나가는
지혜롭고 용감한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이다!

클 | 엠마

혼자서는 어렵다.
그리고 끝도 없이
외로워지는 순간도 생긴다.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어떤 문제 역시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건 나와 동떨어진 얘기인 줄로만 알았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알고 지낸 직장 상사가 나를 성희롱하고 꽃뱀 프레임까지 씌울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날은 퇴근 후 늦은 저녁이었다. 분노와 모멸감, 정의할 수 없는 감정까지 한 데 뒤엉켜 나를 덮쳤다. 집에 돌아와 한바탕 울고 온라인을 살살이 뒤졌다.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노동부 진정, 인권위 진정, 민사소송까지. 모든 걸 해볼 작정이었다.

상담 받은 곳 중에는 도움은커녕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곳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큰 힘이 되는 곳도 있었다. 암담한 벽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도움이 됐다. 당시의 나는 적의 타격점만 쫓느라 정작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때 감정에만 치우쳐 행동했다면 제대로 된 공격이나 방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전에 지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혼자서는 어렵다. 그리고 끝도 없이 외로워지는 순간도 생긴다.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이런 문제 역시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는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다. 하지만 잘 싸우고 싶

었다. 지고 싶지 않았다. 도움을 구했고 도움을 받았다. 혼자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아쉽고 속상한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다.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 그리고 나의 의지였다. 처음엔 내 눈앞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길 바랐고 그걸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이게 맞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주저할 때도 있었다. 괴롭고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아, 전부 그만두자.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위안하며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감정을 비워내고 싶을 때도 분명 있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진정 기간 동안 내 예상보다 나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정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어째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과태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데 그땐 운 좋게 얻어낸 기분이었다. 그나마 그런 결과라도 있었기 때문에 내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싸움에 매몰돼 일상을 잃지는 말자는 게 내가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래야 덜 억울하고 덜 손해 보는 기분이었다. 혼자였다면 과정도 결과도 달랐을지 모른다. 그런 가정조차 암담하고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날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분명 불길한 신호는 곳곳에 있었다.

비상식적인 신호이기도 했다. 나는 상식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느라 나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경계하지 못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자문해 보았지만 이젠 내 탓이 아니었다. 이 질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몫이다. 왜 그랬냐는 물음에 대한 가해자의 답을 나는 물론 알고 있다. 위에 언급했던 '꽃뱀 프레임', 이게 가해자의 답이다.

사건 전과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솔직히 모르겠다. 굳이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다. 대부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잊고 지낸다. 가해자를 떠올려도 분노보다는 하찮고 더럽다는 감정이 대부분이다. 가해자는 어땠을까. 이걸로 생채기나 멍 정도는 생겼을까. 상식과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라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순진했구나 싶은 건, 싸울 의지를 불태우면서도 가해자를 걱정했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사회적 체면,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 심지어 가해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 일로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하는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등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을 상대로 말이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남편인 당신은 고작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이었을 뿐이다. 자식뿐인 직원에게 돈 몇 푼을 대가로 부도덕한 성욕이나 채워보겠다고 역겹게 혀를 놀리던 인간. 내 인생에 작은 흠도 되지 못하고 내 영혼에 작은 생채기 하나 감히 남길 수 없는 하찮은 존재. 나에게

게 당신이 그런 인간이다.

가해자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나는, 현재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경험한 일로 인해 미약하나마 누군가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 내가 지닌 힘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때도 지금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는 힘은 가족이다. 노동부 진정을 하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회사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지만, 퇴사 이후에도 가해자 측의 협박까지 더해져 몹시 괴로운 날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일상을 이어갔던 힘이 가족이다.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 가족의 존재만으로 그냥 충분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 넓게는 미투운동이 그랬고, 가깝게는 서울여노가 있었다. 갈 길이 멀다고는 하나 나는 달라졌음을 체감한다. 내가 서 있는 길도 누군가의 믿음과 의지 그리고 노력으로 다져진 길이기 때문이다. 더디지만 계속해서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나는 앞으로도 잘 지내겠지만, 성폭력 가해자였던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삶이 자책과 반성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그 래야 당신의 딸과 손녀가 사는 세상에 더 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소개

‘센 척한다.’ 이 글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의 반응이다.

나는 수긍했고 그냥 웃었다.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어서 강한 척, 괜찮은 척하는 성향이 있다.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겐 용기이기도 하다.

성희롱 피해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시인의 글처럼 ‘나는 못 해요’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다.

사람은 각자의 기질이 있고 자기만의 해법이 있을 것이다.

글쓰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얼마 후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핑핑 운 적이 있다.

노래 가사가 내가 듣고 싶었고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였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문제제기 안 해도 괜찮아?

클 | 보다

누군가 이렇게 대답해주면 좋겠다.

‘고생했어. 잘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로 고생했어.

지금이라도 내가 할 일은 없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나도 같이 할게.’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산다지. 선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지? 나는 요즘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어 매일매일 속아주며 살아가고 있다.

별일은 아니었다. 회사 선배에게 모르는 것들을 질문했고, 선배는 명쾌하게 가르쳐줬다. 다만 시선이 가슴에 향해 있을 뿐.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병병한 옷을 입고 출근했기에 내가 예민한 거겠지 생각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눈을 잘 못 보는 그런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루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날 그의 시선은 내 두 허벅지 사이에 생긴 그림자에 집중됐다. 노트를 펼쳐서 허벅지를 가려야 했다. 그는 민망해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여성의 몸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다.

고민하다 직장 동료에게 말을 꺼냈다. 피해자가 많았다.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옷을 조심해서 입어야 하나? 짧은 바지도, 얇은 티도 입지 말아야 하는 건가?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 했다. 다음 날,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고지하면서 요구사항(1. 피해자 - 가해자 즉각 분리 2. 전 직원 상대로 피해상황 조사 3. 가해자 공식 징계)을 함께 제시했다.

대표의 명령에 따라 가해자는 즉각 센터를 떠나 우리와 분리됐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아침 조회에서 가해자가 우리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검찰에도 고소가 된다더라! 혐의는 명예훼손. 진부하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고소할 때 거의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며칠 뒤 가해자를 해고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받았다. 피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고라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다니 찝찝했지만 안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며칠이 지난 뒤, 해고됐던 가해자가 나와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내 시스템에 그의 업무 내역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그럼 그렇지. 그를 해고했다는 것은 회사의 거짓말이었다. 혹은 해고했는데 금세 다시 채용한 것이라도 되어야 한다. 둘 중 어떤 쪽이든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지. 궁색하고 초라하다. 눈에 뻘히 보이는 기만. 그 기만이 나를 향해 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넌 어쩔 건데?’ 대표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퍼진다.

동료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울 때, 희미한 한숨소리가 들릴 때 ‘나 때문인가? 내가 공연히 문제제기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움츠러들었다. 죄책감이 심했다. 회사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나는 신입이라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가만히라도 있어야 했다. 그래서 침묵하고 기만당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다른 직원들은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나의 문제제기 때문에 본인들 업무가 많아졌단다. 내가 분위기를 망쳐서 일하기 불편하단다. 직원들의 불편한 표정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숨고 싶고, 사라지고 싶었다. 출근하기도, 퇴근

하기도 힘들었다. 퇴근할 힘이 없는 날엔 퇴근하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기도 했다.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회사 동료들 눈치를 봐야 하지? 하루하루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다.

많은 이들이 내게 괜찮냐고 물어봐준다. 늘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숨쉬기도 버겁다. 왜 나는 늘 당하는 쪽에 있는 걸까? 영화 속, 드라마 속 악녀 캐릭터처럼 갇아주고 싶다. 하지만 내겐 현실 악녀가 될 용기도, 힘도 없다.

공공기관인 원청에서 가끔 나의 상태를 살피러 온다. 담당자가 내게 물었다. “괜찮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 사건의 완결을 기다리느라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는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는 그 거짓말에 속는 척하느라 고생하면서 지냅니다.” 담당자가 혼잣말을 한다. “다 알고 있었네.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어.” 나는 생각한다. ‘역시 이 모든 기만적인 상황은 원청과 공유되고 있었구나.’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내 안엔 커다란 죄책감이 있었다. 과거의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성폭력이 있었다. 그때 나는 친구를 위해 나서지 못했고 이후에 친구가 나에게 다시 왔을 때 그는 두 번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당장 나서지 않으면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는 계속되고, 피해자는 계속 받

생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

내 사건의 가해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내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인생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폭력 공장이 될 것이다. 그걸 아는 나는 이 생고생을 피할 수가 없다. 물러설 수도 없지만 물러설 곳도 없다.

용기를 내서 살고 싶지만 사실 이런 일에 용기를 내고 싶진 않았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이 일이다. 아무도 없애주지 않은 책임감이 내 어깨를 짓누른다.

필사적으로 가해자를 이해해 보려고 했다.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겠지, 우리나라는 성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뭘 몰라서 그랬겠지, 여성들이 없는 가정환경에서 컸나 보지, 사람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못해봤나 보지.... 등등 어떻게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 그 어떤 것도 성희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느라 하루를 다 쓴다. 그를 미워하기도 어렵고, 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를 두둔하는 회사, 피해자를 기만하는 회사, 피해자가 눈치 봐야 하는 상황,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는 상황,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나를 병들게 한다. 이 글은 사건의 아주 일

부분일 뿐이다.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말하고 싶다. “예전에 내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었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을 보태줘서 살았어.”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대답해주면 좋겠다. “고생했어. 잘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로 고생했어. 지금이라도 내가 할 일은 없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나도 같이 할게.”

글쓴이 소개

공대 나와 사회를 부유하는 여성.
브런치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피해자는 생존, 회복, 성장의 단계를 경험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힘들 땀 좀 쉬어도 괜찮아’라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하고 다닙니다.
쉬는 것조차 혼자서는 잘 안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자주 말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자주 말하고 다닙니다. 좀 쉬라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갑시다.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겠죠.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글 | 푸른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당신들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1. 그는 장난이라고 했다.

매일 최소 2번 매월 최소 24번, 첫 사건 발생 후 넉 달 동안 그의 '장난'은 200번 가까이 벌어졌다. 매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매일매일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 서고 예민해져서 그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등 뒤로 누가 오기만 하면 소름 돋게 무서웠다. 보일러 돌아가는 물소리가 무서워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친구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까지 통화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심한 편두통이 떠나질 않았고 매일 체증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챙겨 먹지 못해 기운이 없는 채로 12시간 넘게 일을 하다보니 그의 '장난'에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다. 뒤에서 내 엉덩이에 가해자의 성기가 닿을 만큼 벗어날 수 없게 꽉 끼안고, 내 음부를 만지고, 배를 쓰다듬든, 허리를 감싸든 나는 하지 말라고 말할 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너무 당혹스럽고 힘들 땐 때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7살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더 괴롭히고 싶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는 "가슴 만져도 되지?"라며 웃었다. "뭐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하니, "에헤헤헤" 웃으며 주물렀다. 미친 것 같았다. 아니, 내가 미칠 것 같았다. 숨을 쉬지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나는 어딜 가든 내 몫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12시간 근무 후에 밤을 새워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월급 역시 많이

올랐다. 웬만한 남자들만큼 대차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나 힘 센데, 나도 싸울 줄 아는데... 하지만 제대로 한 번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상사라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좋게 해결해보려 했던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도 못 받는데 적어도 세 달은 더 다녀야 하는데, 며칠 전에 대출도 받았는데. 당장 그만둘 수 없었다. 어떤 법적 대응이 있는지도 몰랐다.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인근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고소하라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고소하자고 했다.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호소를 했다. “그러게, 친하게 지내되,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담당자를 보면서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겠다고 느꼈다.

다음날 나는 가게 비상 대피소에 몸을 숨기며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직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숨이 쉬어지질 않고 주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지각 출근한 담당자는 그런 나를 보며 짜증을 냈다. 그는 나를 불러내 얘기를 꺼냈다.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너도 장난치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니 싫으면 싫다고... 그니까 어제 얘기를 했잖아. 친하게 지내되 선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니까 너도 어느 정도는...(가담을 한 거잖아).”

장난이라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당신 머리로는 그 사람이

장난이라고 말했다고 그게 장난이 되는 거야? 직원이 당한 이 많은 사건들이 가해자의 한 마디 말로 장난이 돼? 나는 화가 나서 반박했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내 행동이 그 남자의 장난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날 이해한다고, 듣기 좋은 말로 내 화를 가라앉혀 줬던 대표 역시 나의 부모님께서는 말씀드리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말했다.

나는 그 길로 곧바로 포털사이트에 ‘직장 내 성추행’을 검색했다.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들어가 전화로 문의해보니, 서울여노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처리 방법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약속된 날짜에 서울여노를 방문했다. 그곳의 담당자 선생님이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셨다.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다면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히 받아들였다.

며칠 뒤 상담이 진행되었다. 초반에는 덩덤한 척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기려고 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상담 선생님은 세심하게, 가끔은 과감하게 내 감정과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주셨다. 덕분에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의 이름을 알게 됐고, 자책하던 마음에서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사실 4개월 가까이 내가 왜 참았던 것일지, 사건이 더 심해지기 전에 왜 좀 더 빨리 고소하지 못했는지 자책하고 있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배려해야 하고 웃어른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증오, 그렇게 증오하는 내가 패륜아 같다는 죄책감에 괴로웠다. 나의 존재가 겨우 가해자 따위에 망가졌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무력감이 불시에 찾아왔지만 상담 선생님은 그런 감정들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것들이라 하셨다. 나는 결코 나약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강인한 사람이고, 이런 내가 위협에 처했을 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셨다. 절대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용기를 내서 대표와 지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소하고, 매주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그제서야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길 거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다.

이 사건 이전에도 아주 어린 유치원생 때부터 나와 친구들은 크고 작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피해를 입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는 친구들이 성범죄 사건을 경험했는지 알고 있다. 경찰에서 상담 받는 과정에서부터 잊지 못할 상처를 2차로 받는 경우가 다분하다. 상담할 여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들, 제대로 대답 못할 거면 경찰서에는 왜 왔냐는 말, 고소해도 어차피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을 거라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다는 말들... 우리는 아주 어린시절부터 어떤 것들이 성범죄이고, 범죄에 노출 또는 피해를 입었

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배우지 못했기에, 이번에도 애매한 처벌로 끝날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여노와 형사님들의 신속한 대처로 고소를 진행하고, 상담을 통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주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

#2.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다 괜찮아진 줄 알았다. 2월부터 10월까지, 짧지만 참 길고 고단했던 소송이 끝날 즈음 이전의 나를 잊고 새로운 나로 새 출발 하기 위해 3차례 미뤄진 선고 예정일 1주 전에 급히 취업을 했다. 바빠 일하며 새 직장에 적응하고 나니, 문득 내 자신에게 이질감이 느껴졌다. 허망했다. 그렇다고 다시 정신건강의학 병원을 가고 싶진 않았다. 나약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분명 내가 나약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무리했던 것은, 그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강박 때문이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내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내게 잊으라고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고민 없이 잊었다. 그런 일 완전히 잊고 다시는 겪지 않겠다 단짐들이 생겨나, 나를 옹아매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땐 온전한 나를 잃은 채 마냥 곤두서 있는 나를 보았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

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자꾸만 내 자신이 답답하고 멍멍했던 것은 법적인 처벌로도 해결되지 않은 멍을 때문이구나. 나아가 나는 아직도 나에게 일어난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었구나....

난 인정하기로 했다. 다 괜찮아진 줄 알았으나 어떤 것도 괜찮아지지 않았다. 장장 4개월간의 강제추행, 회사의 방조,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성범죄에 노출되었던 나의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그저 여자아이라서 재수 없이 돌 맞은 개구리 보듯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나의 억울함과 후유증을 외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에게 그 사건을 잊고 살아야 할 의무도 없다. 이 제서야 겨우 정상적으로 일하며 사람을 대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마냥 감사해야 할 의무도 없다. 나는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기회가 닿는 대로 괜찮아지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당신들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쓰기 소개

처음 이 글쓰기 작업을 했을 때 원고를 마치자마자 1주일 넘게 앓았다. 상담 후기라고 해서 가볍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건을 다시 짚어가며 써내려가다 보니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치유글쓰기 너를 공감해' 프로그램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찾아온 감기몸살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다. 그럼에도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멍들이 분명히 있음을 인지한 이상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결의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으로 묵묵히 싸워나가는 분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나 참 많이 노력했구나. 치열하게 끝까지 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더 큰 처벌을 가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도 남아 있던 나에게 대한 죄책감이 사그라들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다 괜찮아지지 않는 것이 맞다. 가해자의 범죄는 잊혀지지 않고 나 또한 잊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니 여지껏 괴로워한 억울함도 죄책감도 당연한 것이었다. 사건이 끝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시원했다. 나와 참여해주신 분들의 글이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여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맞서고 있다고. 당신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건승을 바란다. 혹여 당신도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이 마음이 닿기를 바란다.

게임업계 사상검증으로 여성노동자는 설 곳이 없다.

글 | 오이김밥

여성노동자로 살아가기도 힘든 마당에
프리랜서는
더욱더 가혹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세상의 잣대는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나는 게임업계에 몸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다. 어릴 적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 속 캐릭터를 동경하며 언젠가 내가 그런 그림을 게임 속에서 볼 수 있길 꿈꿨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늘 즐거운 일만 있던 건 아니지만 가슴 속엔 언제나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그 사건을 계기로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 이제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2016년 7월, 게임업계는 온라인 블랙컨슈머들에 의해 유례 없는 사상검증이 시작되었고 이 일로 수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엔 메갈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을 색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블랙컨슈머들은 대상이 활동하는 SNS를 뒤지며 정확한 물증보다는 심증으로 판단해서 메갈이라 의심 되면 대상이 일하고 있는 업체에 항의해 불매운동을 벌여서 결국 대상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당시 이 사건은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임에서 처음으로 벌어졌고 기업은 결국 블랙컨슈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블랙컨슈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사상검증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블랙컨슈머들은 대부분 남성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

람들이었고, 이 사건은 특히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게임에서 벌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검증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여성 단체를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82년생 김지영>이란 소설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갈이라고 낙인 찍혀 일자리를 잃어갔다.

타깃이 되었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프리랜서이고 여성들이다. 많은 여성들이 나와 같이 게임을 좋아해서 자신의 그림이 게임에 실리기를 바라며 활동하다가 여성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상검증 피해를 입었다. 프리랜서는 기간이 아닌 건당으로 일하고, 일이 마무리된 이후 업체의 마음에 들면 추가로 일을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검증 이슈에서 가장 표적이 되기 쉽고 피해를 입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업체는, 사상검증을 이유로 피해자의 일감을 끊는 대신, 다른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피해자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세상에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 연대를 결성해 활동하고,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하면서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짙어진 낙인의 흔적과 블랙컨슈머들의 지독한 괴롭힘이었다.

나는 사상검증 이슈가 발생한 지 한참 뒤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SNS 구독자 수가 몇만에서 몇십만 명이 되는 유명인들이 대부분이

었고 나는 구독자 수가 5천 명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검증은 나에게 간접적인 비극일 뿐이었다.

평소에도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염려했던 나는 SNS에서 직접 글을 쓰기보다 누군가의 글을 공유하거나 내 그림을 올리는 정도로만 활동했는데 블랙컨슈머들은 내가 공유한 글을 문제삼아 낙인을 찍었고 3년 동안 수차례 일자리를 잃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나를 버린 업체 중에는 나의 능력을 높이 인정해서 향후에도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한 회사들도 있었다. 인정해 준 만큼 나도 업체에게 더욱 좋은 결과를 주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쏟아 그림을 그렸다. 그 결과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니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웅크리며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랐다. 한순간의 해프닝이길.. 하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고 블랙컨슈머들은 내가 기억도 못하는 글까지 찾아내서 자기들 커뮤니티에 올려두고 나를 헐뜯었다. 주변에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내 주변 사람들조차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나를 위로해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함께 일하던 업체가 구체적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니 방도가 없었다. 그들 입장에서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그만이고 대체 인력은 널려 있었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화도 났다. 블랙컨슈머의 편을 드는 업체가 원망스러웠고 물론 블랙컨슈머들에게는 더더욱 분노가 치밀었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블랙컨슈머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나에게 행한 온갖 악플을 일일이 찾아보기 시작했다. 악플의 수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찾아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울어야 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중죄를 저지른 건가.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변호사의 충고는 현실의 냉혹함을 느끼게 했고 다시 한 번 나를 좌절케 했다. 모욕죄는 처벌 수위가 낮고 괜히 미친놈들 건드려서 2차 가해를 입을 수 있으니 차라리 활동하는 예명을 바꿔서 새출발하라고 했다.

혼란스럽고 괴로운 와중에도 고소는 진행했다. 혹시라도 내용이나 증거물이 부실해서 고소가 안 될까봐 신중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어렵게 접수한 고소장은 날 비웃었다. 각하가 되었던 것이다. 모욕의 수위가 낮고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소 기간이 지났어도 그 글은 여전히 존재하고 현재도 나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데 말이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절망스러웠다. 차라리 고소도 진행하지 말 걸 그랬다. 고소 준비를 위해 그 역겨운 악플들을 다 접해야 했고 버젓이 잘 지내는 블랙컨슈머의 근황을 보며 치가 떨리는 경험을 내가 왜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

그제서야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때 세상의 부당

함을 외치던 피해자들은 현재 모습을 감췄다. SNS 계정을 삭제하고 국내의 공식활동을 중단한 채 숨어 활동하거나 해외에서만 겨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들 중에는 부당함을 외치는 대신 블랙컨슈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한 이들도 있다. 사과하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 대가로 낙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간의 나의 노력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나도 그들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했나 싶었다. 비참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내 생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여전히 블랙컨슈머의 사상검증은 계속되고 만연하고 있다. 과연 게임업체의 사상검증이 종식될 날이 올까. 우리에게 별들 날이 올까. 나는 지금도 고통을 삭이며 웅크리고 있다.

02

글쓴이 소개

게임업계에서 종사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어릴 적 오빠가 하는 게임을 보고 함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게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게임뿐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지라
어릴 적 장래희망은 만화가였습니다.
현재는 제가 좋아하던 일과 조금 멀어진 일을 하고 있어 쓸쓸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 이슈에 대한 결정문이 나왔는데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조사가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아쉬운 내용입니다.
여성노동자로 살아가기도 힘든 마당에
프리랜서는 더욱더 가혹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여기 두 편의 글은
지난한 과정을
버겁지만
피하지 않고
기꺼이 통과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과정을 투쟁일지로
보여주기도 하고,
지난한 소송과정에서 터득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세심하고 애정어린 조언까지
아낌없이 들려줍니다.

나 소연에게

글 | 소연

소연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힘내!”

나 사실 말이야. 내 일이 아니었으면 신고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귀찮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창피하고, 내 앞길 막히는데 뭐하러 하겠어. 그런데 말이야. 설마 설마 이걸 아니겠지. 내가 참으면 그만이지. 이제 안 하겠지, 했어. 근데 가만히 있으니 바뀌는 게 없더라고.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추근거렸고, 피하는 나를 더 집요하게 괴롭혔어. 권력을 사용해 회유, 권유, 압박하고, 으박지르기 시작했지. 그때 나 말이야. 계속되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 두려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고, 식욕 저하, 신경이 극도로 과민한 상태가 되었어. 나는 모태불자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해자는 한 종교의 거대 재단법인의 최고관리자인 이사장 스님이었어. 너무 무서웠고 내가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울여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복사했어(경황이 없어 녹음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이게 두고두고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로 남더라). 또 육하원칙에 맞춰 성폭력 사실을 이메일로 알리고, 이사장 스님 집무실에서 면담을 했어 “실수하셨죠?” 물으니 “그건 아니고”라고 하더라. 사과도 받지 못하고 면담은 호지부지 끝났어. 서울여노에서 연결해 주신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서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시작했어. 상담사가 3회기 때 그러시는 거야. 가해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네 상처 챙기고, 안전 조심하며 스스로 잘 방어하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

이사장 스님은 휴가를 못 쓰게 하고 총무과 겸직을 시키고 공식 석상에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지르며 업무에 있어 잘잘못을 따지며 직접 책임을 지라며 경책하기 시작했어. 2차 가해가 시작된 거지. 전형적인 해고 수순을 밟는 것 같았어.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면 스스로 나가라는 강력한 압박이었어.

죽음의 공포가 계속 엄습했고, 밥이 안 넘어가서 미숫가루를 타 먹으며 일했어.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에서는 신고는 본인의 결정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는 사라지고 있다고 하셨어. 나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라고 혼자 다독여 봤지만 결국 인생 전체가 울스톱 됐고, 토요일 당직 근무를 마치고 1366에 긴급 보호요청을 했어. 병원 진료를 받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푹푹 흘리다가 마침내 영영 소리내서 대성통곡을 했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사측 대표메일로 결근계를 첨부해서 제출했어. 그런데 진단서 첨부로 인해 사측에 내 위치가 노출되기도 했어. 그 당시 사측 직원이 자취방으로 찾아오고 집주인을 만나 내 행방을 묻고 다녀서 상황이 아주 긴박했어. 합의를 종용하려고 백방으로 나를 찾아다니고 있었거든. 너무 무섭고 끔찍한 상황이었어.

내가 이 직장에 지원했을 때 내부적으로 나이 많은 여성을 직원으로 뽑으라고 지시가 떨어졌었다. 1차 서류 면접, 2차 이사 면접, 3차 이사장 단독 면접을 거쳐 입사했어. 그런데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는 사업장은 분명 문제가 있더라고.

출근 전부터 휴대폰으로 내일 출근하냐고 전화가 걸려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자상하고 직원 잘 챙기고 일 잘하는 이사장인가 보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서류면접, 단독면접, 전 직장 근무 태도 등 뒷조사까지 이사장이 다 하고 나를 뽑은 거였어.

나는 재무과로 입사했고, 재무과는 이사장 직속라인이라 이사장 수행업무, 다과업무, 분담금 관련 업무만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그 이후로 쪽 이사장 스님의 이상한 질문과 요구가 이어졌어. 집은 전세냐, 자가냐? 식구들은 같이 사느냐, 따로 사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결혼은 왜 안 하나? 바로 결혼한다고 하는 거 아냐? 그 반지는 누가 사준 거냐? 옷 사줄까, 신발 사줄까? 재무과장을 혼자 해보겠느냐? 할 말이 있다, 시간 비워둬라. 모텔에서 쉬어가자. 일출도 보고 가자. 방 안에 방이 하나 더 있다. 단호하게 거절해도 소용없었어.

나는 요리를 잘한다. 너는 잘하느냐? 집에 언제 한번 데려가 주겠느냐? 등등 불쾌한 말을 끊임없이 걸어왔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가슴에 시선이 꽂히는 경우가 많았고, 손을 내놔봐라. 손이 차구나. 건강이 안 좋은가 보구나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손을 만졌다 뺐다를 반복하고, 자극하고, 땀이 나도록 계속 잡고 있고, 손등으로 젖가슴을 훑어내렸어.

손만 조물락거렸지 팔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고, 손바닥을 사용하지 않고 손등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상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법조인과의 상담에서 알게 됐다. 여성들은 수치심 때문에 직장에서 성폭력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여직원을 쉽게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시더라고. 듣고 나니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증폭됐어.

제3자들에 의한 2차 가해도 심했어. “이사장이 맘에 들어 했네. 이건 경미한 사건이니 고소 취하하고 합의하는 게 어때냐. 이사장이 접촉한 신체 부위마다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지인들을 통한 수많은 ‘연락 바람’ 문자. 거긴(지방) 왜 따라갔어요? 거대 집단이 배후에 있다더라. 남성편력이 심하다더라. 사생활이 문란하다더라. 임신하여 출산을 했다더라. 전과가 있다더라. 직장에 더 이상 통칠하지마라. 모두 니 잘못이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여기서 왜 근무하냐? 등등 지금도 2차 가해는 이어지고 있어.

2016년, 나는 너무 무서워서 1366에 도움을 요청하고 장기 여성쉼터에 몸을 숨겼어. 그땐 웃음도 꿈도 삶도 다 잃어버린, 뇌가 쪼그라든 좀비 상태였고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안전하게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병원 진료와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아주 매우 느리게 닫힌 마음을 열게 됐고, 정신적, 물질적 지원과 경찰서 신고에 법률적 보호자로서의 조력 동행까지 전방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

었어.

그래서 나는 사건에 대한 무서우리만치 강한 집착과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정당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어. 지금 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도 싫었고 또 직접 가봐야 끝을 아는 거니까. 주위에서 계란에 바위치기라고, 합의만 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함께 싸워주고, 또 이런 말을 해준 분도 있어. 바위에도 결이 있어서 그 결을 찾아 정을 대고 망치로 힘껏 내려치면 한 번에 썩 갈라진다고...

나 있잖아. 증거수집이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 녹음, 메일, 복사, 제3자 증언, 기록노트 등 나만의 안전장치는 항상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성폭력 발생하면 제일 좋은 건 사건 당일 즉시 신고해서 현장 검거하는 거야. 증거 수집이 가장 쉽고 빠르니까. 성폭력 일어나고 증거 인멸이 아주 빠른 시간에 일사천리 이뤄졌거든.

나는 신고가 느린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계에 의한 지방 납치 때 바로 신고를 못했기에 결정적 증거인 자동차 블랙박스, 모텔 CCTV, 당시 모텔 숙박장부를 놓쳤고, 가해자 측 거대 로펌의 방어력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소비했던 거 같아.

나는 무엇보다 언론화(신문보도)를 잘한 것 같아. 미투운동에 힘입어 재단 이사장 스님 성폭력 단독기사가 보도되고 난 뒤 불

교계에서 이례적으로 여성NGO 단체들이 힘을 모아 성평등 불교 연대가 출범했고 공식 성명서 발표 후 매주 재단 앞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어. 그리고 재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의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제출, 청와대 신문고 국민 청원, 재단 분원 스님의 재단 점거와 2층 난간 단식투쟁, 재단 2층에서 이사장 사퇴 회의 진행 등이 있었어. 폐쇄적인 불교 쪽 자비회사 문중들의 보기 드문 자발적 평화 행보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셨고, 사부대중들의 관심과 지지 응원 노고(이사장 거주사찰 앞 피켓시위와 규탄집회)가 매우 컸어. 연일 계속되는 불교계 언론 보도로 성폭력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고, 얼마 전에는 재단 이사장의 4선 반대와 사퇴 요구 기사가 올라왔어.

2019년 1월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판례가 되기도 했어.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측에서는 이사회 이사장 사표 수리 유무를 투표해서 범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보장을 결정했어.

이사장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 끔찍했지만, 난 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직 복직을 주장하고 출근했어. 원직 복직은 1인가구인 내게 매우 중요한 생계와 자아실현이 걸린 문제였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주어진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고,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 또 근로자로서의 나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업무고충 보고를 꾸준히 하고 있지.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선생님들을 아주 많이 귀찮게 하는 내담자 중에 한 명일 거야. 많이 묻고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의견 듣고 준비해서 실행해보고 피드백하고 또 상담하고, 나는 그렇게 앞만 보고 가고 있는 중이야. 커피 팡~ 팡~ 팡~

소연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힘내!

※ 추신 : 이 지면을 빌어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머리 숙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글쓴이 소개

밝을 소(昭), 연못 연(淵) 소연입니다.

생존 5년차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느리더라도 가고 있습니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들에 상처받고 쓰러져도

매일 매일 오늘이 제 소중한 삶이기에

"Why should i do that because of you????

왜 내가 당신 때문에 그래야만 해???"

열심히 되뇌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투쟁 일지

2016.1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인권위는 권고가 최종결정이고, 고용노동부는 과태료가 최종결정인데 수사권이 동일해서 인권위는 각하 결정됨, 고용노동부 진정 진행)

2016.10 경찰서 강제추행 고소(대법원 승소로 가해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수강 24시간)

2016.12 종교계 독립 언론사 단독보도

명예훼손 피소(절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법 위반) 후 무혐의 처분

1994년 동일 피해자 증인 면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해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이셨어)

피해자 제보, 증거 수집차 지방 방문,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진정(성희롱 미교육 및 성폭력 행위자 미징계 미처분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 금융감독원에 진정, 국가보훈처에 진정, 서울시장에게 진정

2017.5 문재인 대통령 정책제안 광화문1번가 성폭력 원스톱 스포트라이트팀 제도 제안(여성가족부로 접수됨), 범죄피해자지원금 1차 수령

201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심의(제척기간 초과 '각하')

2018.8 세종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초심 구제신청을 '각각' 한다.) 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한 적이 없고, 근로자를 해고 또는 면직 조치한 바도 없다. 그러므로 당초 정규직 공채채용 근로조건을 유지한다.) 라고 판정 받음

2016.10 ~ 2018.12 산재보험 요양청구 승인, 내용증명 발송, 사측 면담 요청, 2019.3 여성쉼터 원장님과 담당 선생님 조력 동행으로 복직 면담 진행

2019.4 복직 후 단순 업무 배치

2019.8 손해배상 청구 확정

2019.2 고용노동부에 최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2019.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의견 송치 결정

2019.7 고용노동부 진정 금품 체불(체불임금 및 연차수당미지급) 진정 202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의견 송치 결정(2020.2 체불임금 및 연차수당미지급금 수령)

범죄피해자지원금 2차 수령, 여전히 2차 피해(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하락 최저시급 수령, 여전히 원직복직 못함, 업무용 PC 없음)

그런 일 당하고도 살아도 돼요?

글 | Hope_Planner

살아도 돼요.
사랑해도 돼요.
웃어도 돼요.

성폭력을 겪고 제 삶은 몸만 어른인 유아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적 관계, 일, 일상까지 모두 퇴화되어 삶의 곳곳이 멈춰버리고 갇혀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집에서 그 일 이후, 방문과 창문 블라인드 모두를 내리고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세상 사람을 피해 스스로를 가둔 채 보냈습니다.

이렇게 2년여가 흘러갈 무렵,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묻고 조용히 나 자신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병든 속을 포장한 채 세상 밖 걸음마를 다시금 시작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거짓 주장들을 저에게 뒤집어씌워 저를 가해자로 뒤바꾸려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시체 같은 저를 두 번 죽이려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사건 당시 충격과 상처가 커서 내지 못했던 제 목소리를 이제라도 내보자는 심정과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런 진실을 밝혀 드러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싸움이다”,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여자인 너한테 좋을 게 없다”라고 충고했습니다. 다시 주저앉아 숨죽이고 숨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조력자인 듯 방해꾼 같은 주위 시선과 사람들로 인해 고통이 배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주저앉아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년 전 그런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회피해버린 제 자신과 과거를 이번에도 외면해서 영원한 트라우마 속에 생매장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모님과 저를 믿는 몇몇의 지인들에게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 않은 진실'을 밝혀, 스스로 후회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 곳(직장)은 제가 꿈꾸는 일을 하려고
늦은 나이에 어렵게 들어간 꿈꾸던 일터였고,
제 생계를 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

내가 겪은 일

- 1)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직장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얼마 후 퇴사함. 퇴사한 회사 기관장 입회하에 개인적 사과 받고 마무리.
- 2) 피해사건이 있는 지 2년 후,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판결받음. 시간은 좀 지났지만, 성폭력 피해에 대해 정식 고소 결심.

소송(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조언

준비

소송의 시작

첫째, 사실에 근거한 피해 주장 원칙을 세울 것

육하원칙에 의거 신빙성이 높은 증거와 근거를 기반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피해사실의 맥락과 증거가 명확하고 신빙성 높은 것을 우선으로 피해를 정리해야 하고 깔끔한 주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 사실과 주장 입증할 증거 수집과 정리

성폭력이라는 피해가 사실상 비공개적인 장소이거나 해당 목격자, 증인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녹취가 있다면 좋겠지만 해당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황 근거들을 정밀하게 채집하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피해 전후 및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본인, 가해자, 지인, 가족 등)과 문자, 각종 SNS, 전화통화 내역(최대한 빠르게 통신사에 요청하기), 본인 사용 카드 결제 내역(승인일시 표기), 메일, 병원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업무 달력이나, 다이어리, 휴대폰 메모 등에 기록한 일기나 출퇴근 기록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집한 증거를 정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다 보면 보완될 부분이 보이고 때론 놓쳤던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와 조력자, 전문가 찾기

본인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지인 몇 명과 따뜻하지만 이성적인 성폭력 전문 상담가와 활동가, 그리고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행 소송의 중간

첫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지지자 찾기, 스스로를 다독이고 돌보기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직장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면 누군가 내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커터칼을 보면서 '손목을 그을까', '수면제를 먹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자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싶었습니다.

혹여 그런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상대 가해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럴 기분이 든다면, 만용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각오로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을지를 곰곰이 연구하셨으면 합

니다. 끝까지 버티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당신은 정말 대단히 이 힘든 싸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이 매우 힘든 여정이지만 어찌 보면 이 글을 읽는 당신보다도 나약했던 제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더 잘할 수 있고 보다 잘 해결될 겁니다.

둘째, 정신적, 육체적 관리

형사, 민사 각각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적 싸움은 기나긴 시간 싸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서적 지지자(가족, 친구 혹은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버틸 체력도 스스로가 잘 안배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괴로움에 매일 밤잠을 못 이루고 밤새며 눈 빨개지도록 증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다 정작 중요할 때 방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려는 자세와 주위를 보려는 노력, 본인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신과 육체 관리를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전문 조력자, 상담, 법률전문가 필요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준비 시작부터 치열한 진행 내내 그리고 이후에도 전문 조력자와 상담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지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관 예우'나 '대형 로펌' 혹은 '아는 변호사'보다 더 우선해 살펴야 할 부분은 '본인과 같은 사례를 처리해 본' 혹은 '성폭력 사건의 전문 경력과 이해가 높은'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피해 당시 서울여노 문을 두드린 것이 기회가 되어, 뒤늦게 소송에 휘말려 정신을 못 차릴 때 서울여노를 다시 찾게 되었고 여기서 법률 자문과 조력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판단이 어려운 고비마다 일상과 이성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냉철한 실질적 조연과 물심양면의 조력, 그리고 따뜻한 지지를 해준 가족과 몇몇의 친구가 있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자립하기

스스로 직접, 다, 하나부터 보이지 않는 뒤까지 일일이, 모두 본인이 해야 됩니다. '증거 채집과 정리, 피해 사실 기록과 진술 등 변호사가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봐주거나 처리해주는 부분은 본인이 정리해온 것을 기반으로 작성 또는 같음하는 정도라 보면 되고, 기대가 클수록 본인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겪은 일이고, 그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유일한 목격자이자 독보적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준비와 진행 중에 저는 성격도 많이 바뀌고 또한 많은 걸 배우고 반성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본인의 의지 또는 의사를 갖는 것입니다.

마무리 소송 정리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이 부분을 꼭 채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되뇌며 힘든 순간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소송을 결심하고 준비 단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차례 갈팡질팡 약해지려 할 때 주문을 외우듯 '호랑이 굴에 들어가 가족을 벗기자'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각오는 점점 강해져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신을 차리고 싸워 호랑이 가족을 벗겨 나오자'는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저 정신만 똑바로 차려 험난한 소송을 '방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넘어 '가족을 벗겨 그 굴을 나오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다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This is me』라는 노래가 나오는 장면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함께 용기

를 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위로 받고 용기 내길 바라며, 그 노래 가사를 여기에 첨부합니다.

난 이 어둠이 익숙해 *I'm not a stranger to the dark*

숨으라고 다들 말하지 *Hide away, they say*

내 흉한 모습을 보기 싫다고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내 모든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살았지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도망치라고 다들 말하지 *Run away, they say*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하지만 그들 때문에 주저앉진 않을거야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우리도 당당히 살 자격이 있어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우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이기에 *For we are glorious*

잔인한 말로 상처 줘도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파도에 다 씻어버릴 거야 *I'm gonna send a flood, gonna drown them out*

난 용감해. 난 당당해 *I am brave, I am bruised*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게 나야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기다려 내가 갈 테니 *Look out 'cause here I come*

나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리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남의 시선은 두렵지 않아 *I'm not scared to be seen*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 이게 나니까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 줄임 -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And I know that I deserve your love*

그 어떤 것도 날 부끄럽게 할 순 없어 *There's nothing I'm not worthy of*

- 줄임 -

이게 나니까! *This is me*

그래 이게 바로 나야!

아무렇지 않게 가면을 쓰고 나를 숨긴 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살아가는 것이면 됩니다.

소송을 시작할 무렵 서울여노에서 집단 상담의 기회가 있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비슷한 듯 각기 다른 모양의 피해를 입은 20-30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인도하시는 분께서 “이번 참여자 분들은 다 젊은 나이 또래시네요.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다 나이가 젊을 거라는 인식이 흔한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50~60대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 예를 들어 건물 미화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해 상대자는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관리인도 있고, 피해자보다 훨씬 어린 용역업체 상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분들이 '나이 많고 볼품 없는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은 걸 누가 믿겠냐'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기 받아서 고마운 거 아니냐'는 식의 2차 가해하는 말을 주위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입고도 말 못하고, 피해자가 더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다 상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편견이 심하고 시야가 좁은 사람인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려서', '예뻐서', 혹은 '헤퍼서', '행실이 그런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나쁜 가해자'가 있는 곳에 교통사고처럼 그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빈 적은 없지만 과거 직장 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용기를 내 시초가 되어준 서울대 우조교님과 소리 없이 소송을 해오며 목소릴 내준 수많은 또 다른 피해자 분들께 너무나 송구하고 그분들의 용기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도 수많은 계란들이 바위를 친다면 당장은 깨지지 않아도 분명 바위는 패고 움푹하게 되어 바위에 길이 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 당하고도 살아도 돼요?" 혹은 누군가 묻

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살아도 돼요.
사랑해도 돼요.
웃어도 돼요.”

글쓴이 소개

누군가의 부탁에 'NO'라는 거절을 어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는
소심하면서도 꼼꼼한
여행과 뮤지컬을 좋아하는
물건을 버리고 과감히 추억을 정리 못하는 평범한 여성
이제는
세련되진 않지만, 또 어설피고 서투르지만
나의 마음에 귀 기울여 스스로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목소리 잃고 물거품 된 인어공주나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 프레임에
길들여지길 거부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록과 치유의 시간, 너를 공감해] 진행 후기

온몸으로 살아낸 경험을 글로 쓰는 시간

글 | 박미라(치유하는 글쓰기 연구소 대표)

서울여노가 주최한 <기록과 치유의 시간 너를 공감해>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글쓰기 워크숍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기록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공감하는 자리, 그리고 피해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글로 써서 점검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랜 기간 피해에 맞서 싸운 여성들이 현재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맞서 싸우는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꼭 글로 써보고 싶다. 그들이 우리의 경험을 읽고 좀더 수월하게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여성을 돕겠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의 핵심주제는 기록을 통한 치유였습니다.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타인과의 소통도 가능해집니다. 워크숍은 2020년 6월 13일부터 3주간 토요일마다 총 15시간 진행됐고,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8명이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은 글쓰기와 친해지기 위한 일종의 몸풀기로 시작됐으며, 이후로 다양한 글쓰기와 그림, 콜라주 작업 등을 통한 성찰과 공감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견디고 싸웠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심리적, 물리적 후유증과 아울러 우리 사회 성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겪게 되는 죄의식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중반부는 자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줄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깐요. 그리고 미래의 삶을 소환해 지금의 자신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워크숍의 마무리는, 각자 하고 싶었던 말을 한 편의 글로 써서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의 후유증을 경험하는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정보도, 도움도 없이 외롭게 버티고 있을 이름 모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에 담았고 각자가 써온 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가슴의 울림을 느끼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치열하게 온몸으로 살아낸 경험을 기록한 글은 그 자체로 뛰어난 작품이 된다는 걸 이 시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크숍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쓰기 오리엔테이션
- 돌아보는 글쓰기
- 나를 지지하는 글쓰기

- 나에게 보내는 편지
- 의미 찾기
- 새롭게 꿈꾸는 글쓰기
- 그대를 위한 글쓰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내 진지했고, 또 성실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솔직했고, 서로를 응원할 때는 따뜻했습니다. 고통으로 성숙해진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여진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가오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 묵묵히 신발 끈을 동여매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일 겁니다. 워크숍에서 만난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을, 그리고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운 전사이며, 영웅이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에서 고충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평등상담실의 심리치유가 큰 힘이 됩니다.

직장 내 문제에서 발생한 심리정서상담의 경우에는 일하는 여성이 가진 생존권의 문제를 비롯해 직장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직장문제에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직장과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쉬워집니다.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노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와 직장에 안전하게 복귀함으로써 노동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진행되는 법적 대응을 위한 상담과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화시켜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고용평등상담실에 신청하면
전문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과 함께합니다.

**일터
고민은**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02-3141-9090

**마음
고민은**

튼튼한 심리정서지원단
박미라, 정선, 홍수경
함께합니다.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상담 02-3141-9090, 1670-1611 대표 02-3141-3011
홈페이지 equaline.or.kr E-mail equaline@hanmail.net

